

1. 아침편

(다나카의 자택 침실. 핸드폰이 웅웅 울리고 있다. 다나카는 침대에서 멍하니 있다.)

(다나카의 어머니, 방의 밖에서)

어머니: 일어났어?

(다나카는 침대 안에서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본다)

다나카: 벌써 7 시네, 일어나야지.

(화장실 문 앞)

다나카:아아, 시원해.

(욕실 거울 앞에서)

다나카 : 아아, 머리가 부스스하네.

(식탁에서)

다나카: 엄마, 오늘도 또 된장국하고 토스트야? 정말 이상한 궁합이야.

어머니: 아빠가 된장국을 좋아하잖아. 반찬투정 하지말고 빨리 먹어. 안 그럼 지각해.

다나카: 네 알았어요.

(다나카, 손목시계를 보고 나서)

다나카: 아, 큰 일이다. 시간이 빠듯하네.

(다나카의 오빠, 조용하게 현관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 온다.)

(오빠는 다나카를 보고 소리를 내지 않으며 「쉬」의 신호.)

다나카: (일부러 큰 소리로) 아, 오빠. 잘 잤어?

오빠: 쉬. 조용히 해. 겨우 살그머니 들어 왔는데..

어머니: (조금 화난 것처럼) 쇼이치, 또 아침에 들어오니?

오빠: 미안, 학교에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, 시계를 보니까 아침이었어.

다나카: (의심하면서) 4학년은 그렇게 바쁜거야?

오빠: 그렇지 뭐.

어머니: 아침 밥 먹을래?

오빠: 아니, 우선 샤워부터 하고 올께.

(목욕탕 욕실에서)

(오빠가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실루엣. (씩아씩아)샤워 소리가 난다.)

오빠: 아 아, 개운하다.

(복도에서)

다나카: 다녀 오겠습니다.

어머니: 조심해.

(다나카 주머니를 뒤지면서)

다나카: 핸드폰이 없어! 깜빡 잊었네. 엄마, 내 방에서 핸드폰 좀 갖다 줘.

어머니: 응 알았다. 알았어. 하여간 어쩔수 없는 애라니깐.

(다나카의 방. 난잡한 모습.)

어머니: 또 방이 엉망진창이 되어있네. 음...핸드폰, 핸드폰! 아, 여기 있다.

(현관에서)

어머니: 여기. 가끔은 방 청소 좀 깨끗이 해라

다나카: 응 알았어. 갖다 올께!

어머니: 응 갖다 와. 조심해라.

1. 朝 編 <日本語版>

母：起きたの？

（田中は、はっとして携帯を見る）

田中：もう7時か、起きなきゃ。

（トイレのドア前）

田中：ああ、すっきりした。

（洗面所鏡前）

田中：ああ、髪がぼさぼさだ。

（ダイニングテーブルの部屋）

田中：お母さん、今日もまた味噌汁とトースト？、変な組み合わせ。

母：お父さんは味噌汁が好きなんだから、文句言わないで。ほら、さっさと食べなさい。遅刻するわよ。

田中：はあい

（腕時計を見てから）

田中：あ、大変、もう時間ぎりぎりだ。

（田中の兄が外からこっそり入ってくる）

田中：（わざと大きい声で）あ、お兄ちゃん。おはよう

兄：シー。静かにしろよ。せっかくそっと入ってきたんだから。

母：（少し怒ったように）翔一、また朝帰り？

兄：ごめん、学校で実験をやってて、時計を見たら、朝になっちゃった。

田中：（怪しい声で）四年生ってそんなに忙しいの。

兄：まあな。

母：朝ごはん、食べる？

兄：いや、とりあえずシャワーを浴びてくる。

(風呂場脱衣所)

(兄が中でシャワーを浴びているシルエット。ザーザーとシャワーの音がする)

兄：あああ、さっぱりした。

(玄関)

田中：いってきま〜す。

母：いってらっしゃい。

(田中、ポケットをさぐりながら)

田中：携帯がない。うっかり忘れてた。お母さん、私の部屋から携帯取ってきて。

母：はいはい。しょうがないわねえ。

(田中の部屋)

母：また部屋がめちゃくちゃになってる。え〜と、携帯、携帯.....

(玄関)

母：はい。たまには部屋をちゃんと掃除しなさいね。

田中：わかった。いってきます！

母：いってらっしゃい！気をつけてね。

<単語帳>

- ・自宅 (じたく)
- ・寝室 (しんしつ)
- ・携帯電話 (けいたいでんわ)
- ・震える (ふるえる)
- ・洗面所 (せんめんじょ)
- ・味噌汁 (みそしる)